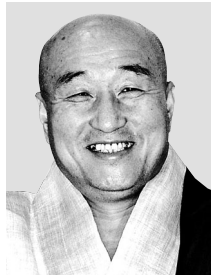




#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인류의 큰 기쁨”

## 건학 109주년 맞아 미래 위해 힘찬 발걸음 내딛자

###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친애하는 동국가족과 불자 여러분! 눈이 부시도록 푸른 오늘,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동떨어진 교리로 중생을 교화하지 않았습니니다. 부처님은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주는 분이시 우리들을 진리에 데려다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들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할 뿐 정작 이런 투철한 자기성찰과 반성에는 소홀하여 많은 갈등과 번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국인 여러분! 올해로 건학 109주년을 맞은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물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도 잠시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 마음의 티끌을 털어내고 미래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오늘, 건학 109주년을 맞은 우리 동국대학교와 동국인 가족, 그리고 불자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비인재 배출하는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킬 것

###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성스러운 사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우리 동악에는 백화가 다되어 피며, 남산자락은 생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불교라는 한 종교의 창시자이기에 앞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고 그 자각을 선언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생명과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 보인 구도자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은 팔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끼친 영향은 세월이 지난수록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일찍이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 인류와 중생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아

닐 수 없습니다.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불성을 밝힐 수 있으며, 모두가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 1906년에 설립된 우리 동국대학교가 올해로 건학 10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국대학교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25만여 명에 이르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명문사학으로 이 나라와 사회를 선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국대학교를 새로운 대학과 대학다운 대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오랜 역사와 전통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참사람 열린교육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교수들과 교직원 학생, 동문과 재단, 불교계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고 동국의 중흥을 위해 한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동국발전을 위해 동참해주신 모든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처님 오신날은 화합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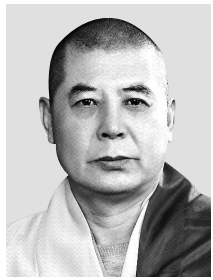
###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 되고 마주치는 풍광마다 경전이 되는 날입니다. 퇴근하는 아버지의 가슴에도, 살림하는 어머니의 가슴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들딸의 가슴에도 서광(瑞光)이 장엄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갑과 을이 없는 종단, 갑과 을이 없는 사회 부처님 오신날은 모두 같이 되는 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불을 밝히니 휴전선 너머 길이 열리고, 현해탄 건너 바닷길도 열리는 날입니다. 빈자일 등(貧者一燈), 천년만년 꺼지지 않는 비원의 등불을 밝히니 모두가 부처님 되어서 섬김을 받으시니.

## 세세생생 부처님 말씀 의지하길

###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세세생생 변함이 없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부질없는 말에 귀를 열어 현혹되지 말고 언제나 성실하게 부처님 법을 전하며 자기를 낮추고 정진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일찍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불성을 믿고 굳건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간다면 시방세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 지혜와 자비로 등불을 밝히면서

###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불멸등해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人人燈) 장명등해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登) 지혜와 자비로 무명의 어두움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 우리가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고 지난 세월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소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진정한 참 나를 찾읍시다

### (사)대한불교유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스님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생명이 약동하는 불남 오셨습니다. 뜻 중생들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원력과 무량한 복덕으로 무명에 가려져 삼독에 물들어 있는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자비의 등불,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니. 무명이라는 어둠과 어두운 곳을 밝혀 진정한 참 나를 찾읍시다.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참 나를 찾아 남과 이웃을 위하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 거룩한 날, 행복한 날 되자

###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



부처께서 무명의 어둠을 밝혀 오셨습니다. 넘치는 욕망으로 번뇌가 쌓이고 쌓이던 불성은 사라지고 사악이 번성하여 갈등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불화와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불화와 대립으로 이어져 넘치는 번뇌로 나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오늘 하루 만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며 스스로 부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 가족을 넘어 이웃과 세계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 여래장 종자 연등 밝히세

###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불자들은 여래장 종자 연등을 밝히는 것을 스승으로 삼아 우리 몸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성은 오고감이 없는 불생불멸이며, 한번 태어난 육신은 지, 수, 화, 풍 사대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전쟁, 금생, 후생에 영혼은 여여한 세계에서 금강석 같은 본래지리를 밝힐 것입니다.

## 자유인으로 생사고해 벗어나자

###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지 2559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바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진할 것을 다시금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8경도의 실천과 6바라밀행으로 부처님의 사상과 이념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의 목적은 이고득력에 있습니다. 즉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제 탐 진 치의 삼독을 내려놓고 자유인이 되어 생사고해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고귀한 생명들이 고해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 봉축 의미 다시 새기는 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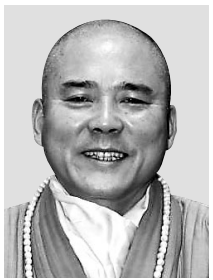
###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보살은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압니다.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중생은 부처가 아니므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뜻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 대립 떠나 정진하는 불자 되길

### 대한불교심원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이천만 불자 여러분! 산과 들에 푸른 생명이 약동하는 5월, 인류의 위대성을 최초로 선포하신 아기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지 2천6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불자들의 가장 큰 축제날인 사월초파일은, 고통 가득한 사바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서 일대사인 연으로 오신 의미 깊은 날입니다. 인류의 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통바다에서 갈 곳 몰라 하는 중생을 위한 길을 걸으시며 중생 모두를 부처님 되는 길을 일러주시는 참다운 스승이셨습니다. 수 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 행복의 등불을 밝히시다

###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을 위한 사부대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날 재앙에 가까운 지진으로 7천여명의 국민을 잃은 부처님의 나라 नेपाल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 전국의 불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개인주의로 인한 폐해는 견줄 수 없이 커져가며, 현대 사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많은 분야에서 불교의 참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때일수록 불자들은 굳건한 의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공직자로 책무 다하는 계기로

### 김상인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는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루하루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공무원불자들이 앞장서서 마음의 미혹을 떨치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펴 보면서 맑은바 직분에 충실 한다면, 이 나라 모든 국민이 보다 편안해지고, 우리나라는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우리 모두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 온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붓다처럼, 처음처럼

###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투신 이유는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열어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 모두에게 일체 중생이 곧 불성이라는 축복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세태의 변화를 예언하시고 깊은 연민의 정으로 중생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화신으로 출현하신 의미를 되새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은 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붓다처럼 살아가시고, 처음처럼 깨어나십시오!

## 자비실천에 불자들 힘 모으자

###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대불련 총동문회에서는 2017년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며 금년에는 (3.3.3)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대불련과 대불련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이 하나가 되어 3000명의 대불련 동문을 더 발굴하고 전국 300개 대학에서 젊은 불자들의 환성이 매아리 치도록 지회를 더 건설하여 젊은 대학생 불자들의 터전을 잘 꾸어보자는 것입니다. 기도와 정진을 통해 튼튼한 대불련의 기반이 될 것을 발원합니다. 기도와 자비로 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불처럼 불심 피어나길

###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5월은 부처님오신날. 오! 부처님. 상서로운 빛, 환희의 미소로 불교여성개발원 처의 곁에 축복으로 오신 님! 님께 사계의 공양미를 두 손 모아 바칩니다. 일심으로 예경하고 우러러 합장합니다. 이 작은 공간 자비실, 지혜실, 교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인연 뒤로 미루지 않고 받고 싶은 그 누구든 너와 내가 당신이 되거나 하소서! 내가 되거나 하소서! 이 세상 머무는 그날까지 큰 기쁨으로 안고 따뜻함을 나누는 5월의 오늘처럼 찬란한 열정이 거러마다 피어오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온 천지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초파일,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미혹을 걷어내는 봉축으로

### 윤기순 종교세계신문 발행인



부처님이 오신다. 빛으로 오시고 원음(圓音)으로 오시고 법신(法身)으로 오신다. 부처님은 육체의 질곡과 마음의 미혹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인간이 본래부터 자유인 이요, 완전자임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 라는 허구를 자각함으로써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하는 의미로 바로 이러한 인류최대의 자유자제인을 기리는 데에 그 뜻이 담겨있다. 부처님 오심의 봉축행사가 불교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민족의 대축제가 되도록 고양시켜 부처님이 인간해방을 선언했듯이 민족의 축제로 승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쟁에도 타인 돌아보는 마음을

### 이재은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부처님의 헤엄慧命을 이어받은 저희 대학생 청년 불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불자로서 살아가기를 서원합니다. 더불어 광복 70년, 분단 70주기를 맞는 올해, 불국정토 건설과 함께 민족 통일의 큰 뜻을 두고 있는 저희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참된 생명 가치와 평화의 기운이 돌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대학생 불자들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대학생 불자로서 포교와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네팔 지진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